

3대 동거형 아파트의 입주후 실태분석

— 상계지역의 경우 —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Living in the Three Generation Sharing Apartment Houses — A Case of Sang-Gye Area —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신 경 주
성심여자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최 정 신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

Associate Prof.; **Kyung-Joo Shin**

Dept. of Home Management, Song Sim College for Women

Assistant Prof.; **Jung-Shin Choi**

< 목 차 >

- | | |
|-----------------|-------------|
| I. 緒 論 | IV. 결과 및 해석 |
| II. 先行研究에 관한 考察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urvey wa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living and housing needs of three generation family in the sharing apartment houses in Sang-Gye area.

1. General family type was one which is living with single parent (female), middle-aged couple and their children together.

2. Their main mobility to move in this houses was because of the special design of sharing apartment houses.

3. Most of actual dwelling activities of old parents and middle aged couple were performed in condition of space-integration except a few activities.

4. The "Space-compromise type" was proved as the most ideal type of three generation sharing house in our country. In which, private spaces (such as bed rooms and bath rooms) are planned to be used separately, public spaces (such as living room and dining room) together.

5. It would be better if massionette type was taken in the case of more than 30 pyung (net area).

I. 緒 論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커다란 사회발전을 야기하면서 주택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都市化로 인한 核家族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주택부족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은 量的 공급확대에 주력하여 대량공급에 적합한 共同住宅을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주로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생활방식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공급이 핵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족형태의 하나인 3대동거가족의 주택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핵가족화를 조장시키는 逆作用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부, 주택공사, 1986).

더우기 노인에 대한 많은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자하는 희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한국갤럽, 1984) (박재간, 1985) (김태현, 1982) (이인희, 1983) (경제기획원, 1985) 3대 동거의 가족형태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커다란 意識差異를 갖는 世代間의 同居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핵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종래의 주택과는 다른 住空間上의 배려를 필요로 하며, 또한 3대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구성과 생활방식이 다양하므로 주거형식도 다양하게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부모와의 同居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생활방식의 차이, 世代間 프라이버시의 침해, 고부간의 갈등, 심리적 부담감 등을 들고 있는데(박연수, 1986) (이혜순, 1987) (신경주, 1987) 이러한 문제점들은 종래의 핵가족위주의 주택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3대동거를 원하는 많은 가족들이 불편을 적게 느끼며 동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3대 동거주택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多數의 연구가 나와 있으나 문헌분석내지는 일반주택 거주자를 통한 부분적인 3대 동거주택에 대한 연구 뿐으로, 실제

로 3대 동거주택으로 공급된(모두가 아파트임) 주택에 대한 평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3대 동거주택 공급 및 이를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3대 동거주택으로 공급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3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3대 동거가족의 住生活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가족들의 주공간의 대응관계 및 住要求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3대 동거주택 연구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先行研究의 考察

3대 동거주택에 관한 연구는 가족구성의 특성때문에 서양의 경우에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만 그 例를 찾을 수 있었다.

3대 동거주택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으로는 동거의식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았다.

동거의식은 노년층이나 청년층보다는 중년층이, 그것도 현재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년층이 노부모와의 동거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율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이혜순, 1987) (신경주, 1987) (건설부·주택공사 1987) (경제기획원, 1985) (지순·윤복자·윤진·조혜정, 1985) (西下彰俊, 1984) (高橋正人, 1987) 이는 중년층의 노인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3대 동거주택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동거의식에 있어서는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출생순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장남과 남자의 경우에 훨씬 노부모와의 동거희망율이 높았다(박연수, 1986) (이혜순, 1987) (신경주, 1987)

노인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동거희망율이 높고, 자녀중에서도 장남과의 동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한국갤럽, 1984) (이인희, 1983) (유영숙, 1985) (전창욱, 1985) (高橋正人, 1987)

3대 동거가족에서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이 가정내 지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위가 낮았다. 또한 3대 동거가족의 노인보다는 미혼자녀나 노부부끼리 사는 노인의 지위가 더 높았다(곽경숙, 1983).

노부모는 주로 집안에서 집보기, 손자녀 돌보기, 집안청소 등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역할이 많았다(건설부·주택공사, 1987).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인 자립도가 매우낮아 자녀의존적인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하게 되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편친일수록 가사의 주도권은 중년부부에게 있었다(곽경숙, 1982)(건설부·주택공사, 1987)(박하전, 1985).

3대동거주택내에서의 세대間 주생활의 통합과 분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식사는 공동으로 하는 율이 높

았고 T.V시청은 공동율이 높기는 하나 식사보다는 낮았다(건설부, 주택공사, 1987)(박하전, 1985). 이에 따라 세대별 영역배치에 있어서 거실·식당과 같은 공적인 공간은 공용으로 하고 욕실·변소는 세대別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고(조원덕, 1984)(건설부·주택공사, 1987)(윤철순, 1986)(신경주, 1987)(민경애·김혜정, 1987) 등은 공간의 공용과 분리에 의해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등의 다양한 동거주택계획을 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 분	평 형	호 수	해당동번호	난방방식
평면 1	32	120	1906~1908	중앙난방
평면 2, 3	35	240	1909~1912	
평면 4	38	180	1906~1908	



* 상계아파트단지중 ---선으로 표시한 곳이 3대 동거형아파트로서 본 조사 대상지역임.

(그림 III-1) 조사대상단지(배치도)

3대 동거주택에서의 노인실의 거거양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좌식을 권장하고 있었다(이효재·지순·박민자, 1979)(정은옥 1987)(신경주, 1987)(이지혜, 1987)

3대 동거주택에서의 공간의 대응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노인용 전용공간에 대한 계획이 실현된 바가 없어서 노인실의 확보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전용실의 확보율이 낮으며(고계철, 1979)(박하전, 1985), 이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지순·박민자, 1979).

3대 동거주택에 대한 住要求는 세대간의 공간분리 요구보다는 방의 갯수와 크기 증가에 대한 요구와 화장실 분리요구가 컸다(건설부·주택공사, 198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 단지과 평면

① 조사대상단지

조사대상은 3대 동거형아파트로 건설된 주택에 거주하는 3대 동거세대로 하였다. 대상선정에 있어서 3대 동거형 아파트로 가장 먼저 공급된 단지

를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겠으나 반포 1단지 32은 메조니트형으로 사실상 68.12평이며, 목동 1단지 45평 C형이 47.10평, 목동 3단지 45평 B형이 47.97평, 55평 D형이 58.11평으로 모두가 대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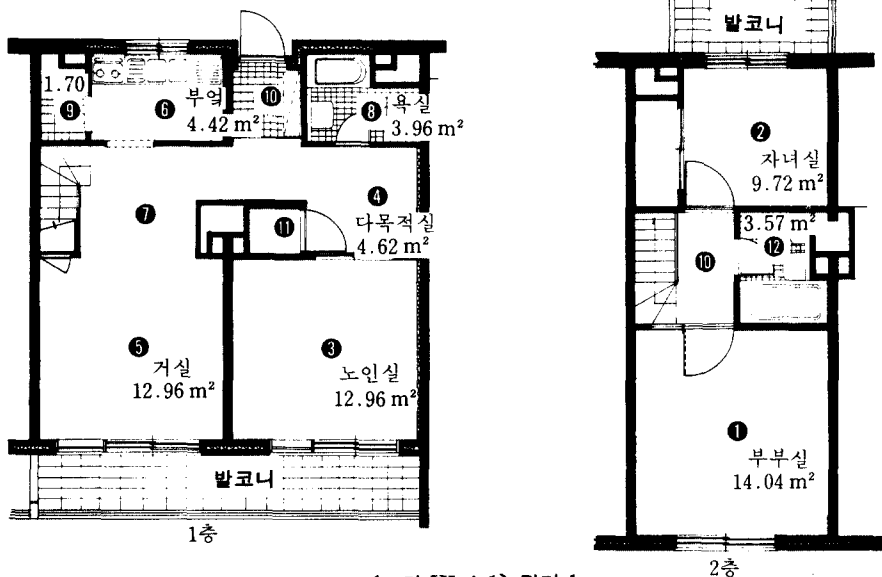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3대 동거주택공급의 주된 대상을 同居誘導가 가능한 중류층으로 보고 있으므로(두채 분리 거주가 가능한 세대와 경제적 사정상 어떤 조건의 주택에서도 동거해야만 하는 세대는 제외함) 부득불 다소 거주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으나(1988년 12월 입주), 이 조건에 맞는 35평내의 규모의 상계동 주택공사의 3대 동거형 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단지는 1986년~1989년에 걸쳐 대한주택공사가 상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계동과 창동에 지은 아파트 단지이다.

전 건설세대수 32630세대(거주민구 약 15만명)로 이 중 19단지의 6개棟 540호(1906~1912棟)가 3대 동거형 아파트로 시범건설되어 해당 가족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곳이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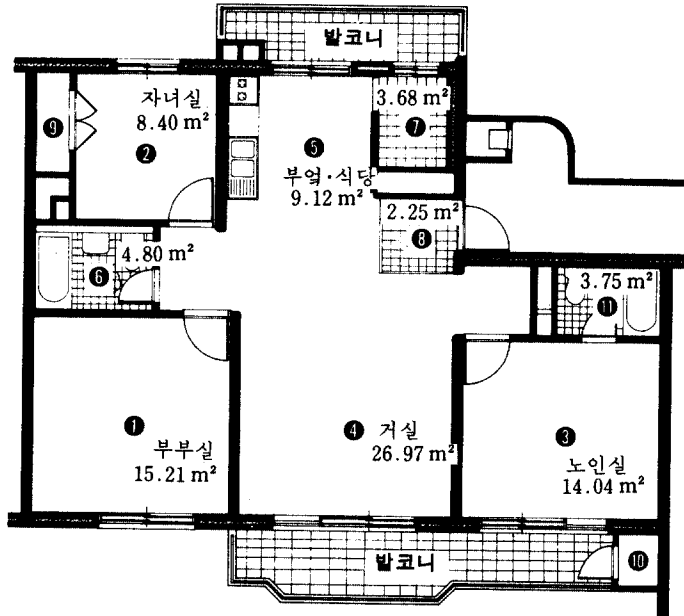
② 조사대상 아파트의 평면

조사대상 아파트의 평면은 그림 III-4~1~4와 같다.(그림 III-4-1)(이하 평면 1이라 약칭함)은 3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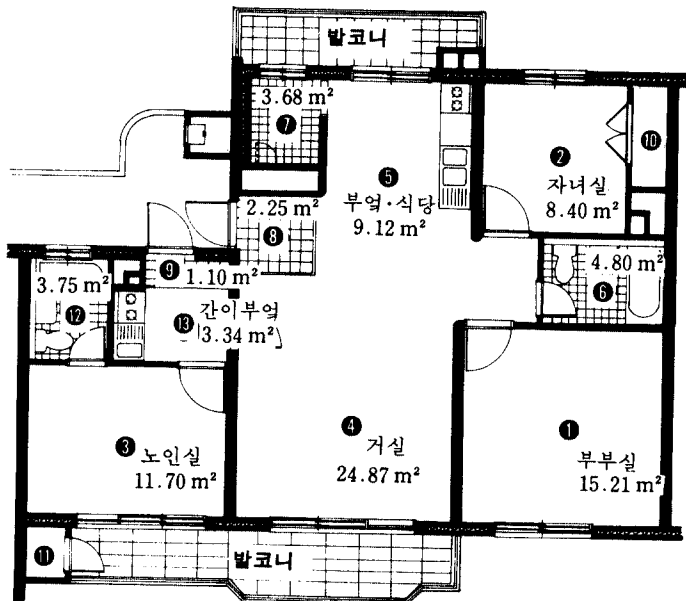


(그림 III-4-1) 평면 1

상하분리형 동거평면(32평) : 조사세대 17/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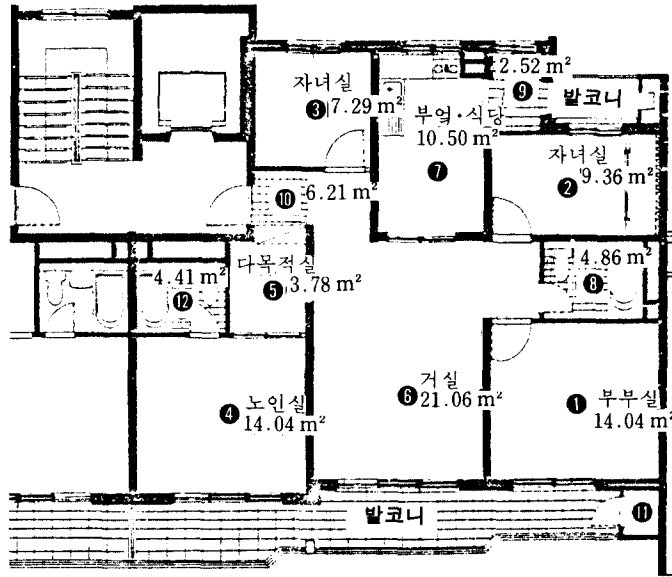
〔그림 III-4-2〕 평면 2 상호형 동거평면 (35평) : 조사세대 24/120



〔그림 III-4-3〕 평면 3 분리형 동거평면 (35평) : 조사세대 27/120

형으로 上下로 공간이 분리된 경우이며, 조사세대는 17세대이다.〔그림 III-4-2〕(평면 2)와〔그림 III-4-3〕(평면 3)은 35평형으로 동일평면형이고, 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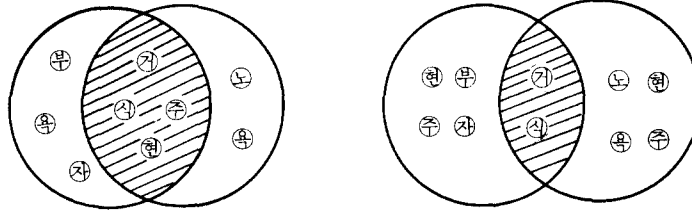
평면의 차이는 평면 2는 생활공간의 절충형(상호형 동거; 신경주의(1987)의 분류에 의함)이고 평면 3은 분리형(분리형 동거)이다. 평면 4는 38평형으로 역



(그림 III-4-4) 평면 4 상호형 동거평면 (38평) : 조사세대 8/180

평면 1, 2, 4

평면 3



법례) ● : 공동사용 ○ : 분리사용
 거 : 거실 식 : 식당 주 : 부엌 현 : 현관 부 : 중년부부실
 노 : 노인실 자 : 자녀실 욕 : 욕실

(그림 III-4-5) 각 평면별 공간계획

시 동일평면형으로 절충형이다.各型別장단점은 신 경주(1987)의 논문에서 제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사대상평면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림 III-4-5)와 같다.

2) 자료수집

① 조사대상 世帶 選定

상계동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결과, 해당 3대 동거형 주택 540호 居住世帶中 실제 3대 동거세대는 86世帶 뿐이었다. 이 자료를 19단지 관리사무소의 入住者 카드와 비교 검토하여 이 중 다시 실입주자가 아닌 세대를 제외시키니 해당세대는 80세대뿐으로 애초의 주택공사의 의도와

는 달리 3대 동거형아파트의 15.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80세대중 최종 76세대가 실제로 조사되었다.

② 조사방법

조사는 조사원에 의한 면접법과 관찰법을 곁했다. 조사기간은 1989년 5월 13일에서 23일 사이로, 조사원은 주생활학에 대한 강의를 받은 대학생 16명으로 事前에 調査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시켰다. 조사시에는 2人씩 8組로 편성하여 준비된 평면도(1/50축도)와 조사표를 가지고 각 호별, 방문을 하여 가족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표에 기입하는 한편, 평면도에 그 집의 가구배치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스케치 하였다. 면접대상 가족원은 노인(40%)이나 中年夫婦(50%), 손자녀(10%), 누구든지 응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므로 다소 대상자에 의한 주관의 개입될 수 있었으나, 응답자가 중년층이 50%, 노인층이 40%로 비슷하여 비교적 中立的인 답이 얻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2. 연구문제 및 용어정의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① 3대 동거형 아파트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무엇인가?

② 3대 동거가족에서의 노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가정의 주도권자는 누구인가?

③ 3대 동거형 아파트내에서 世代間 住生活의 통합과 분리상태는 어떠한가?

④ 3대 동거형 아파트내의 노인실의 기거양식은 어떠한가?

⑤ 3대 동거형 아파트에서의 공간의 對應은 어떠한가?

⑥ 3대 동거형 아파트의 불편점과 住要求는 무엇인가?

2) 용어 정의

① 3대 동거주택-중년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부모, 자녀와 동거하는 주택

② 노인-연령에 관계없이 본논문에서는 자녀의 결혼후 그들과 동거하는 이들을 모두 노인으로 정의했다.

③ 자녀-중년부부의 자녀를 칭한다.

④ 3대 동거주택유형-신 경주(1987)의 분류에 준한다.

○ 공동형(일체형 동거)-世代間에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주택형

○ 절충형(상호형 동거)-세대간 필요영역은 일부 공유하고 일부분은 분리하는 주택형

○ 분리형(분리형 동거)-한 주택내에서 세대간 모든 영역을 분리하는 주택형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성격

평균 가족수는 6.4명으로(88년의 평균 가족수 4.2명) 다소 많았고, 세대주의 평균 연령은 39.5세(주부는 36.1세)로 중년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 76가구의 노인수는 107명으로 양친인 경우보다 편친과의 동거율이 높았으며, 노인의 평균 연령 67.0세로 고령자는 적었다. 性別은 여자가 68%로, 남자보다 많았다.

세대주의 직업은 공무원·관리·회사원이 52.6%, 다음이 자영·상업, 기술·사무·전문직의 順으로 비교적 중류층이었다.

노인의 前職은 여자가 많은 관계로 無職이 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농업이 13.2%였고, 현재도 직업을 가진 노인은 7명뿐으로, 노인의 취업의 어려움을 반증하였다.

주부의 직업은 유직자가 20명(26.3%)으로 핵가족에 비하면 취업율이 높았다.

2. 연구문제의 해석

1) 3대 동거주택 보급에 관한 사항

① 同居理由와 入住動機

동거이유는 “자식의 의무이기 때문에”가 32.9%, “장남 이므로”가 25.0%,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므로”가 21.1%로 78%가 책임의식으로 同居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상호보조(6.6%), 노부모의 건강(5.3%), 경제적인 이유(1.3%), 기타(6.6%) 등을 들었다. 이는 다른 연구(이인희, 1985)(김태현, 1982)(곽경숙, 1982)(이혜순, 1987)(신경주·박연수, 1986)에 비해 당연론자의 비율이 높아서 다소 보수적

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3대 동거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보였다.

現住居로의 入住動機는 “3대 동거형 아파트이기 때문에”가 반 정도이며, “3대 동거가족에 분양 우선권이 있어서”가 22.4%, “내집마련” 및 “큰집으로 이사”가 15.8%였다. 그외에 직장과의 거리나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이 결과를 보면 3대 동거주택의 공급과 동시에 3대 동거가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법은 3대 동거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이 방법의 확대방안이 요망되며, “내집마련” 및 “큰집으로 이사”도 16% 있었으므로 3대 동거주택의 싼 분양가나 장기 저리 용자 등도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족형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의 변화

現住宅으로 移住하기 前의 住居型과 家族型, 앞으로의 희망 住居型과 家族型을 질문한 결과, 가족형에 있어서는 “대가족-대가족-대가족”의 형태가 68.4%, 과거에는 핵가족이었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3대 가족으로 살고자 하는 세대가 13.2%로 포함 80%이상(핵가족 지향, 15.8%) 3대 가족형태를 일시적이 아니고 거의가 영구적인 가족체제로 유지하고자 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3대 동거형 주택에의 요구는 앞으로도 클 것이 예상되어 3대 동거주택의 필요성이 재확인 되었다.

住居型의 변화에서는 “집합주택에서 집합주택으로 옮겨왔으며 앞으로도 집합주택으로 가겠다는 型”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집합주택-집합주택 型”이 30.3%로 두번째로 많았다. 따라서 장래에 집합주택 희망자가 6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단독주택 희망, 29.0%). 이는 3대 동거주택으로 집합

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더 선호된다는 종래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부분적으로 아파트 거주자가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신경주, 1987), (신경주·이혜순, 1987), 3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한 박하진(198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3대 동거주택으로 아파트단지개발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동시에 이들 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평면의 개발이 기대된다.

2) 3대 동거가족의 家庭內 老人의 役割과 가정의 주도권자

① 가정내 노인의 역할

노인의 역할은, 여자노인의 경우는 손자녀 돌보기(29.6%), 가사보조(23.0%)등이 많았고, 남자노인의 경우는 별로 할일이 없다(20.4%)가 많아 노인들의 무료한 생활의 일면을 나타냈다. 노인의 역할은 며느리의 직업유무와 상관관계를 보여서 며느리가 직업을 가진 경우는 家事를 전담하는 상호보조형이 많았다(9.2%). 또 노인의 역할은 응답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노인이 응답자인 경우가 중년부부가 응답자인 경우보다 노인의 가정내역할이 많았다(표 IV-2-1).

이로써 兩世代間의 役割意識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 주택의 평면에 따른 노인역할의 차이도 다소 보여 평면 2,3의 경우, 손자녀 돌보기, 가사보조라는 답이 다소 많았다. 만약 주택평면이 노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따라 주택평면별로 구분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50%가 건강하다고 했으며 中이 28%, 下가 23%로,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많았는데 이는 고령자가 적었던 때문으로 보였다.

② 家庭內의 主導權者

中年夫婦 主導型이 67.1%, 상호의존형이 22.4%, 노부모주도형이 10.5%로, 중년부부 주도형이 가장 높았다. 이것은 우리나라 3대 동거가족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반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동거가정에서 노인은 경제력과 實權이 없고 중년부부가 노인을 쫓으므로 부양함을 의미한다. 주택면적별로는 면적이 넓을수록 중년부부 주도형이 많아졌다.

가족유형별로는 편친의 경우(편친+중년부부+자녀), 중년부부 주도형이 가장 많았고(63%), 노부모

<표 IV-2-1> 가정내 노인의 역할

주택평면 역할	1	2	3	4	계	
					f	%
가사전담	3	5	5	1	14	9.2
가사보조	8	13	11	3	35	23.0
손자녀 돌보기	11	15	17	2	45	29.6
취미(종교) 활동	5	10	8	3	26	17.1
별로 하는일 없음	9	10	8	4	31	20.4
생계유지		1			1	0.7
합 계	36	54	49	13	152	100.0

<표 IV-2-2> 가정내 주도권과 가족융합도와의 관계

주도권 융합도	노부모 주도형			중년부부 주도형			상호의존형			계	
	f	%	%	f	%	%	f	%	%	f	%
상	2	25.0	62.5	14	27.5	84.4	13	76.5	100.0	29	38.2
중	3	37.5		29	56.9		4	23.5		36	47.4
하	3	37.5	37.5	8	15.7	15.7	.	.	.	11	14.5
합 계	8	100.0	100.0	51	100.1	100.0	17	100.0	100.0	76	100.1

주도형은 양친이 다 계신 경우(양친+중년부부+자녀)가 많았다(50%).

이는 獨身老人은 그만큼 子女에 대한 依存度가 커지며 또, 獨身老人의 경우, 할머니가 많아 여성의 경우에 특히 의존도가 높고 實權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상호의존형은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중년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 많았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부가 출근한 후 노부모가 가정관리 및 육아, 교육문제 등에 보다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隔合度 側面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가족 융합도가 中以上인 경우는 노부모 주도형인 세대(62.5%)보다 중년부부 주도형인 세대(84.3%)가 다소 높고 상호의존형인 경우가 가족 융합도가 가장 높았다(100%)<표 IV-2-2>.

앞으로 동거주택에서의 원만한 주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3) 3대同居住宅에서의 世代間 住生活의 통합과 분리상태

① 食事行爲

건강상 누워지내는 老人(2家口)을 제외한 노인의 식사는 식당에서 공동으로 하며, 노인 전용의 간이부엌이용율은 0%였다. 따라서 앞으로 3대동거주택 계획시, 부엌의 獨立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없음이 타 연구 결과와 같이(조원덕, 1984)(박하전, 1985)(민경애·김혜정, 1987)(신경주·박연수, 1986) 입증되었다.

② 단란행위

대표적인 단란행위는 TV시청, 가족간의 對話로, 가족단란을 분리하는 세대가 40.8%(31세대)로 통합하는 경우 59.2%(45세대)보다 다소 낮았다.

<표 IV-3> 노인실에서의 행위수

주태평면 행위	1	2	3	4	계		%	
					f	%		
공적행위	식사	2	1	1	4	11.6	22.7	
	접객	6	3	3	12	4.8		
	TV시청	7	13	15	38	15.1		
	가사	7	3	3	3	1.2		
사적행위	담화	5	11	8	2	26	10.4	77.4
	취침	17	24	27	8	76	30.3	
	휴식	11	22	23	5	61	24.3	
	독서	5	10	7	1	23	9.2	
	취미	7	7	1	1	8	3.2	
계	51	95	84	21	251	100.1	100.1	

이는 TV의 경우에는 選好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고 대화시에는 가족간의 교육수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만한 3대 동거를 위해서는 공동의 단란공간을 두고, 세대별 단란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필요한 시간만 함께 단란을 하도록 二元化함이 바람직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老人室이나 부부실에 간이 단란공간을 병행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③ 接客行爲

접객행위는 함께 하는 世帶가 84.2%로 대부분이며 一部 分離하는 세대가 있었다. 분리하는 세대는 남자노인의 손님인 경우와 家庭內 主導權이 老人에게 있는 경우였는데, 이는 노인이 가정내주도권을 갖는 세대가 가족융합도가 낮았던 것과도 상통하였다. 이에서 앞으로의 동거주택계획시는 접객공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계획해도 좋겠다.

④ 老人室에서의 行爲

노인실에서서의 행위는 취침, 휴식이 54.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TV시청(15.1%), 담화(10.4%)등이다(표 IV-3). 대부분 私의行爲가 위주이며, 이에 병행하여 TV시청, 담화 등의 단란行爲가 일어나는 정도이고 食事등은 엄격히 분리되었으므로(食寢分離) 住生活의 질서가 어느정도 지켜졌다고 본다. 그대신 居室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收容되므로 居室의 主要性이 인지 되었다. 老人室內에서의 生活行爲數는 평면 2(相互型 同居形態)의 경우에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남자노인만 체신 경우와 가족융합도가 낮은 가정의 경우에 노인실에서서의 행위수가 많았다.

4) 3대 동거주택에서 노인실의 家具를 통해서 본 기거양식

全調査家口의 老人室의 家具의 總數는 279개로, 이를 분류하면 수납가구(옷장, 이불장, 서랍장)가 4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TV, 화장대, 문갑이었다. 대부분의 노인은 좌식가구로 좌식 기거양식을 취하며(78.9%) 평균 가구의 所有數는 3.7개로 수납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노인실에 침대와 책상이

놓인 경우(절충식 17.1%)는 손자녀와의 공동사용실인 경우의, 손자녀용으로서 노인이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1例 뿐이었다.

이 경우 손자녀의 立式家具사이에서 노인은 좌식으로 잠만 자는 형편으로 이것 역시 노인의 권위약화를 입증하는 것으로 3대 동거가정에서의 노인의 편의를 위한 가족의 배려가 요망되며, 이에 대한 중년층의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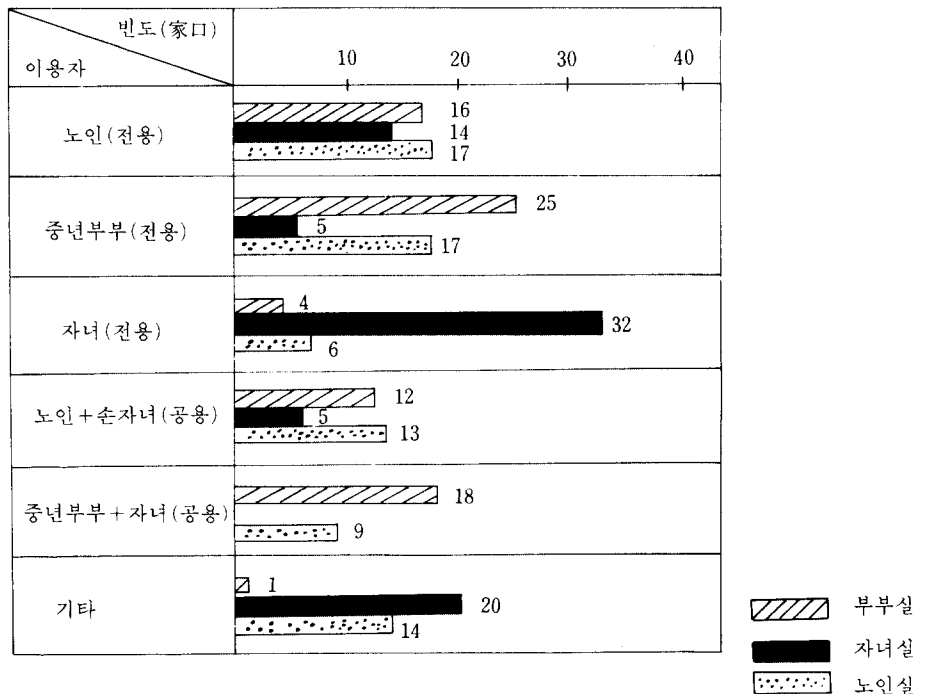
이에 비해 부부실을 살펴보면 좌식이 75.0%, 입식이 22.4%, 절충식이 2.6%로 노인실보다 입식화의 진전이 다소 빠르며 연령이 젊을수록 더욱 그러한 경향이였다.

5) 3대 同居주택에서의 空間의 對應

① 개인 생활공간의 이용현황

가 개인생활공간의 變用

동거주택에서의 개인생활 공간은(그림 III-4참조) 1번의 부부실, 2번의 자녀실, 3번의 노인실이 있다. 1번과 2번사이에 가족용 욕실이 있고, 3번의 노인실에 욕실이 독립되어 있어 세대간의 공간분리를 意圖하고 있다(평면 4의 경우에는 노인실이 4번으로 되어



(그림 IV-4) 개인공간의 이용자

있음).

이 공간의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원래 계획대로 중년부부가 1번을 사용하는 가구는 57%, 1번 부부실과 3번 노인실(평면 4의 경우에는 4번)을 바꾸어 사용하는 가구가 40%로 前者가 많았다.

본 조사대상 주택의 경우 평면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번과 3번 방(평면 4의 경우에는 4번)의 규모와 方位가 같아서 사실상 어느 방의 우위는 없었으며 계획시는 세대간의 공간분리 개념의 측면에서 兩房의 명칭이 정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간사용 실태조사 결과는 자녀와 노인이 한 영역을 이루며, 중년부부가 일부공간을 點有하는 비율이 40%정도나 되어 사실상 분리형 동거주택을 절충형 동거주택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어 그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V-4).

㉑ 개인생활공간의 共用

중년부부와 자녀, 또는 노인과 손자녀의 공동사용을 보면, 중년부부와는 11.4%, 노인과는 12.7%

로 거의 비슷하나 노인의 경우가 조금더 많았다. 이는 자녀가 학령기 이전에는 중년부부와 기거하다가 학령기 이후가 되면 노인과 기거하거나 독립된 자녀실을 쓰는 경향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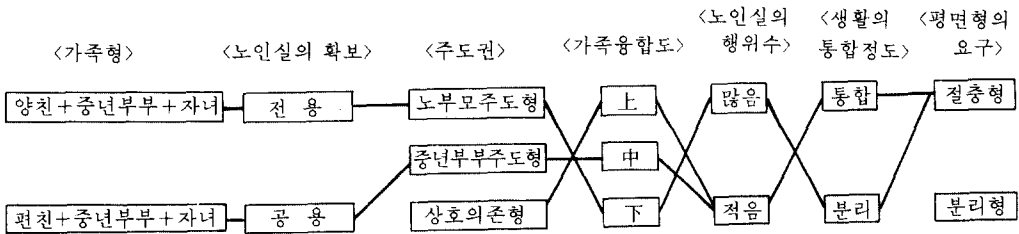
이에 비해 노인실과 중년부부실 專用率은 총침실수 236개중 노인실 50개(21.2%), 부부실 51개(21.6%)로 거의 같았다(그림 IV-4).

㉒ 老人專用空間의 이용현황.

㉑ 노인 전용공간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평면 3) 노인전용 현관과 부엌을 따로 사용하는 例는 하나도 없었으며, 현관을 폐쇄하고 간이 부엌은 창고나 통로, 또는 손자녀의 학습공간으로 용도를 바꾸어 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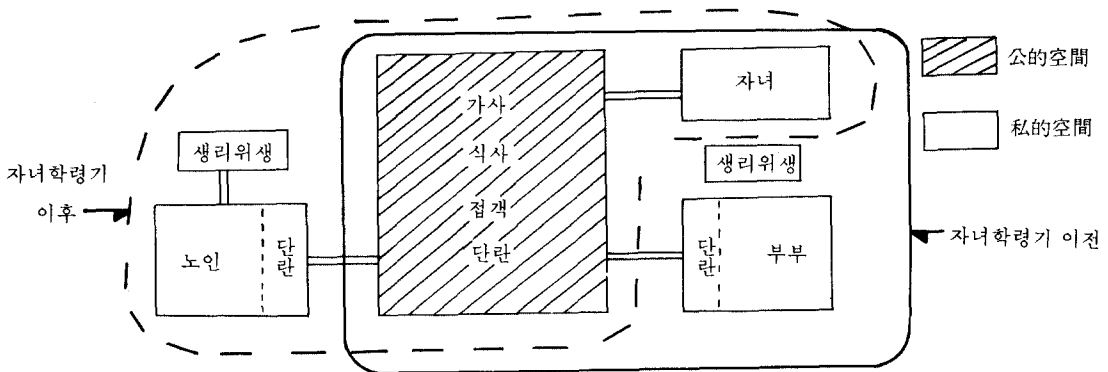
또한, 조사결과 이 공간은 다른 世帶에게 욕실, 3번방과 함께 임대한 경우가 10세대(37%)나 있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동거주택의 최소 면적산정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노인 전용공간이 예정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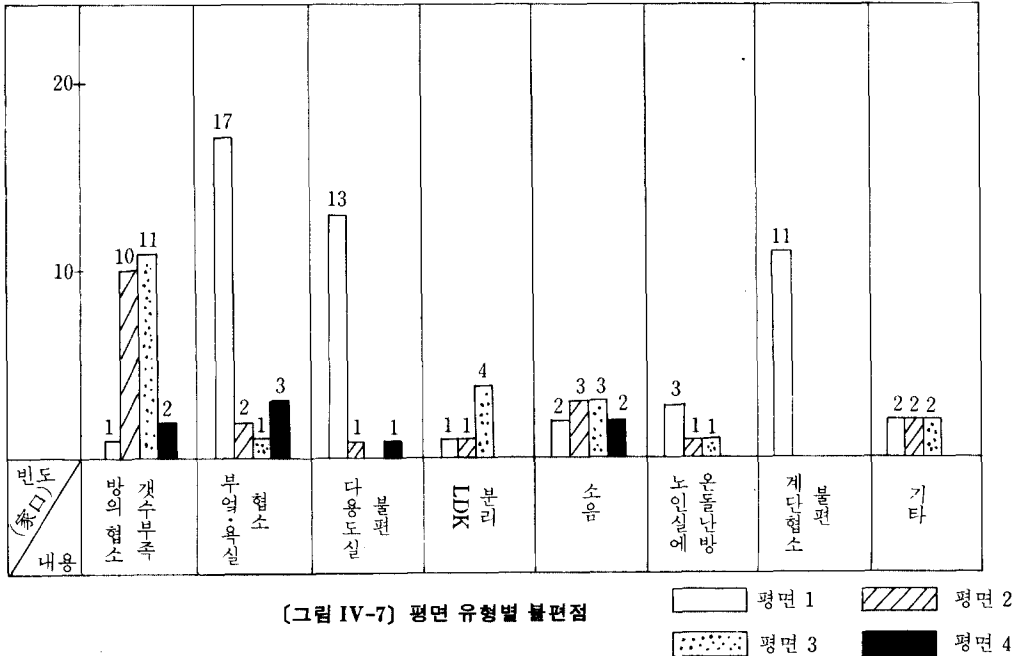


*—선은 강한 관련을 가진 관계임.

(그림 IV-5) 3대 동거 가족의 주생활특성



(그림 IV-6) 3대 동거 가족의 공간대응 개념도



면 4)이 공간의 이용실태는 별 의미없이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63%) 많았고 나머지는 창고와 취미실로 쓰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인전용 공간은 공간의 活用度가 적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분리형 동거형태는 호응이 낮은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3대동거가족의 주생활 특성을 간략히 유형화하고, 이들의 住生活에 對應하는 공간 개념도틀을 例示하면 (그림 IV-5, 6)과 같다.

6) 3대 동거주택에서의 불편감과 住要求

주택유형별로 불편건수를 보면 평면 1(50건) → 평면 3(22건) → 평면 2(20건) → 평면 4(8건)의 順이었다(그림 IV-7). 現 同居住宅에서 居住者가 느끼는 불편점은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장 불편점이 많았던 32평 상하분리형에서는 노인들의 계단사용에 대한 불편이 많았고, 1,2층으로 구분할 때 계단면적으로 인한 부엌, 욕실의 협소함이 주된 불만사항이었다. 다음으로 불편점이 많았던 곳은 평면 3(분리형 동거형태)으로 노인전용의 간이부엌과 현관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또, 노인의 경우는 노인실에 재래식 온돌난방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좌식생활에 익숙해진 노인이 계절에 따라 시간별 난방으로 인해 원하는 室溫을 얻

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목동지구와 같은 폐열난방방식은 언제든지 원하면 각실별로 난방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도 도입된다면 난방문제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전반적으로 방이 좁다거나 부엌이나 욕실이 좁은 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30% 이상) 이는 이들 3대 동거가족들의 가구원수가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보다 2.2명 더 많은 것과, 일부공간의 임대에서 온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의 동거주택 계획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필요없는 공간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간을 절약하여 필요공간을 넓힐 수 있는 평면계획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89년 5월 13일에서 23일에 걸쳐서 3대 동거형아파트(상계동 아파트 단지내에 시범 건설된 것)內的 동거가족(76세대)의 입주후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대 동거형 아파트의 평면유형(4종류)별로 그들의 공간대응관계, 世代別 영역분리사항, 주택의 불편점과 住要求를 中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기에

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3대 동거가족의 가족형태는 편친만 계신 경우가 양친 모두 계신 경우보다 2배 정도 더 많았고, 특히 여자노인을 모신 경우가 많았다.

2) 이들 가족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가족형과 주거형은 3대 가족형태를 유지하며 집합주택에 사는 것이 가장 많았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동거형 집합주택 평면의 개발이 요구되며, 분양 우선권이냐 적절한 분양가, 용자방법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3대 동거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3대 동거가족에서 노인의 역할은 손자녀 돌보기와 가사보조가 많았고 가정내 주도권은 중년부부 주도형이 많아서 노인이 실권이 없음이 입증되었다.

4) 3대 동거형 아파트내에서 세대間 주생활행위는 단란 행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식사, 접객행위에서 모두 통합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3대 동거주택의 공간계획시에는 식사, 접객, 가족단란의 공간은 통합하되, 단란의 경우는 세대별 간이 단란공간을 각개인공간에 겸하여 계획함이 바람직하겠다.

5) 노인실의 기기양식은 좌식이 압도적이었다.

6) 住空間의 對應關係에서 보면, 3대 동거형 아파트의 평면유형에 관계없이 분리형 동거주택(평면 3)에서도 절충형 공간사용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음이 나타나 절충형(상호용 동거주택)의 호응도가 높은 것이 입증되었다.

7) 주택의 불편점은 상하분리형(평면 1)이나 분리형 동거(평면 3)에서 많이 나타났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형(상호용 동거)의 공급비율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이 경우에 활용도가 낮은 노인 전용공간대신 침실을 하나 더 확보한다면 자녀의性別에 따른 침실분리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앞으로 3대 동거주택의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노인부양책임자인 中年世代를 중심으로, 호응도가 높은 동거주택유형, 동거주택의 최소면적 산정, 세대별 영역분리와 공간의 대응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3대 동거세대의 원만한 가족생활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 센서스, 1985.
2.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8.
3. 이효재, 지 순, 박민자,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경제 및 공간문제, 1979.
4. 조원덕, 直系 3世代를 위한 住居計劃,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5. 이상영, 한국 3대同居家族 住居形態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6. 박하전, 집합주택에 있어서의 3대직계가족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7. 건설부, 주택공사, 3대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1987.
8. 신경주, 청년의 주요구 측면에서 본 3대동거주택의 조건 I, II, 한양대 환경과학논총 제 1집 : p. 37-85.
9. 박연수, 청년의 부모와의 동거의식 및 동거시 주거조건에 관한 고찰,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0. 이혜순, 청년층의 3대동거주택조건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1. 민경애, 김혜정,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권 1호, 1987 : p. 83-92.
12. 대한주택공사, 상계동 주공 아파트 분양안내 팸플렛.
13. 광경숙, 한국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의 현황과 전망, 가정학연구 6집, 원광대, 1982 : p. 273-296.
14. 손준규, 김성순, 이경자, 노인문제의 현황과 대책, 한국노년학회 경노주간학술세미나 자료집, 1987 : p. 3-16, p. 31-34, p. 712-72.
15. 황진수, 한국노인 복지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16. 고정자,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IV집 1980: p. 163-94.
17. 이인희,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거주의식에 관한 연구, 東大논집. 15집. 1983: p. 197-225.
18. 건설부·대한주택공사,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시범개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86
19.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84.
20. 박재간,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 부양기능, 한국노년학 No. 5, 1985: p. 54-61.
22. 광경숙, 한국 가정에 있어서의 노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개발연구 제 7집,

- 1983: p. 385-406.
23. 유영숙,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4. 전창욱,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관한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5. 윤철준, 3세대 공동주택의 계획방안에 관한연구, 영남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6. 고계철, 대도시 주거단지내 노인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27. 지 순, 윤복자, 윤 진, 조혜정,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주택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럭키개발수혜연구, 1985.
 28. 이지혜, 노인 독립생활을위한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9. 정은옥, 축소기 가족을 위한 주거건축의 성능요구 조건설정, 충북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7.
 30. 西下彰俊, 3세대여성의 동·별거의식의 연구, 사회노년학 No. 19, 1984: p. 43-57.
 31. 高橋正入, 向老期에 있어서 동거·별거와 의식, 사회노년학 No. 25, 1987: p. 19-29.
 32. Shanas, Ethel, Old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2, p. 9.